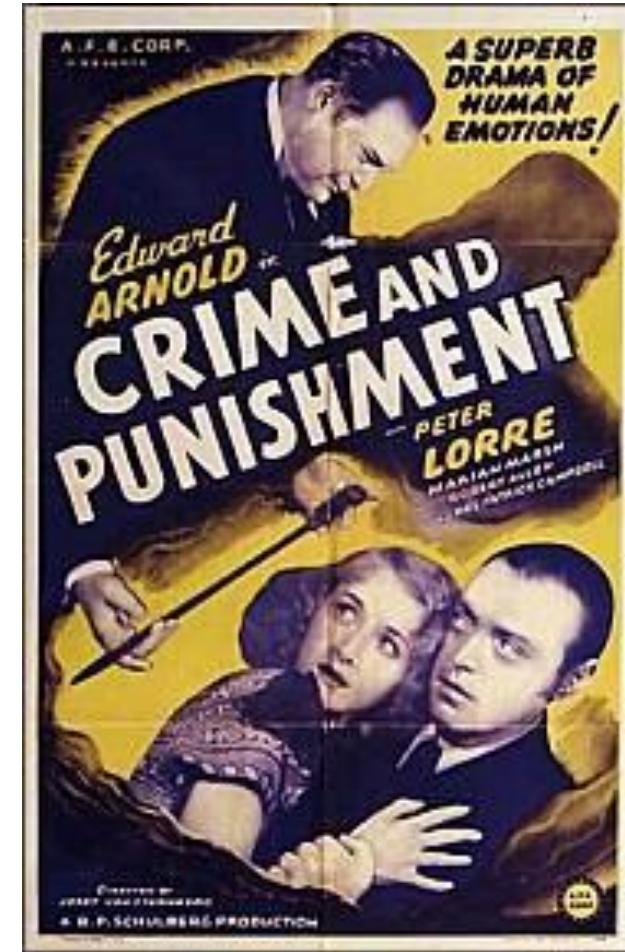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Jason Kim

표도르 미할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Fyodor Mikhaylovich Dostoevski: 1821-1881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Przestępcość i nakazanie*, 1866

- 대학생 라스콜리코프는 책의 이론, 7월의 무더운 날씨, 영양 부족, 하숙집 주인의 고발, 동생 듀나의 상황을 알리는 어머니의 편지로 타오르는 분노가 더해지면서 폭발한다. 여동생 두냐의 변태 고용주와 야비한 약혼자에 대한 증오가 전당포 노파에게 투사된다. 그는 서구적인 합리주의자이자 무신론자였으며 남에게 백해무익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 훌륭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예리한 지성은 고독의 사색으로 초인사상을 체계화시킨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류는 '나폴레옹'과 '이(蟲)'로 분류된다. 즉 선악을 초월하고 나아가서 스스로가 바로 법률이나 다름없는 비범하고 강력한 소수인간과 인습적 도덕에 얹매이는 약하고 평범한 다수인간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마리의 이에 불과한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대상으로 삼았다.
- 그는 노파의 돈을 빼앗아 자기의 학자금을 삼기 위해서였다. 누이동생 두냐는 자기 학비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나이에게 몸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혼을 하려는 것이다. 하숙집 부엌에서 장작 패는 도끼를 훔쳐 품에 넣고 전당포에 가, 물건을 잡히려 온 척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끼를 마구 휘둘러 노파를 살해한다. 우연히 노파의 여동생이며 지적 장애인인 리자베따가 유혈이 낭자한 살인 현장을 목격한다. 증인을 없애기 위해 그는 이 백치 여인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고 극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살인을 저지르고 난 라스콜리코프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나폴레옹이 되어 다수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사상을 뒤로 미뤄둔 채 죄도 없는 리자베타를 죽인 양심에 대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유효하게 쓰기는커녕 어딘가에 버리고 계속 양심의 가책만 받게 되었다.

- 이후 그는 예상치 않았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노파를 향했던 분노와 증오가 자신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후회와 다른 기이한 자괴감, 그리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섬뜩한 감정에 억눌려 혼돈을 경험한다. "끝없는 고독감과 음울한 소외감이 갑자기 뚜렷하게 그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 한편 그의 범행이 이렇다 할 혐의가 없어, 예심 판사 포르피리는 두 노파의 죽음이 그의 각본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의심할 뿐 그 범죄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포르피리는 증거가 없어 라스콜리니코프의 양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실 예전에 이런 류의 견해를 신문에 발표한 일이 있었다. 결국 포르피리는 이 사건을 사상적 동기의 범죄로 보고, 라스콜리니코프와 논쟁을 하면서 재판을 전개했다. 그사이 말메라도프가 마차에 치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를 계기로 그의 딸 소냐와 사귀게 되었다. 정신착란증인 계모와 자기의 동생들을 위해 몸을 팔고 있는 이 아가씨한테서 살인범 라스콜리니코프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를 죽여 나폴레옹이 되고자 했던 라스콜리니코프와는 달리 자신을 죽여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부 소냐를 보고 자신이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간접적으로 고하게 되고 몸을 굽혀 방바닥에 엎드리고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백을 들은 소냐는 그에게 말한다. "이 세상은 넓지만 지금의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 네거리로 가서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입맞추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세상 사람 모두에게 들리도록 '나는 살인자입니다!'하고 외치세요. 그리하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 주실 거예요."

- 라스콜니코프는 즉각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경찰에 자수하러 간다. 경찰서로 가는 도중 소냐의 말에 따라 그는 광장에 들러 대지에 끓어앉아 무한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흙에 입맞춤을 한다. 소냐는 작자가 이상으로 여긴 복음서적인 사랑과 인종의 사도이며 무신론자 라스콜니코프에 대립되는 구원의 담당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소심한 성격과 어리석음에 패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수한 라스콜리니코프는 8년 형을 언도 받는다. 이는 자수한 정상 등을 참작해 준 관대한 선고였다. 그는 형을 받기 위해 시베리아로 가는데, 소냐도 고아가 된 동생들의 뒤처리를 끝낸 뒤 그의 뒤를 따른다.
- 에필로그에서 그녀의 감화에 의한 주인공의 종교적 갱생과 정신적 부활이 그려지고 있다. 합리적 원리와 비합리적인 원리와의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에 직면한 주인공의 심각한 고민은 투철한 심리분석과 극적인 박진력으로 훌륭히 묘사되고 있다. 또한 그의 누이동생 두냐는 시종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의 친구 라즈미힌과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

『죄와 벌』 주인공

- 라스콜리니코프
- 듀냐
- 어머니
- 라주미힌
- 뽀르피리
- 알료나 이바노브나(노파)
- 리자베따
- 마르멜라도프 - 짜짜리나
- 쏘냐
- 스미드리가일로프

평가

- 시대상: 농노의 해방, 도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은 상징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주인공들은 인생의 비극적인 시작으로 진실과 자기 완성을 추구한다. 도스토옙스키의 감추어진 동기와 무의식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통해 현대 심리학의 발전을 예견하며, 주인공의 비이성적인 행위, 심리적 갈등, 꿈, 광기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 세기 실존주의와 초현실주의 문학을 위한 초석을 놓기도 하였다.
-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하는 라스콜리니코프, 맑은 영혼이지만 가족을 위해 몸을 파는 쏘냐를 통해 인간의 양심과 본성, 인간의 죄와 벌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한다.

- 라스콜리니코프는 절대자에게 의지하면서 벌에서 벗어나 평온에 다다랐다. 쏘냐의 신념인 신앙, 절대적 기준에서 위안을 찾은 것이다. 어쩌면 『죄와 벌』은 지극히 신앙적인 소설일 수 있다.
- 경제 생활과 다른 사회 생활과의 관계(윤리와 경제):
 - 알료나 이바노브나는 전당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반면, 라스콜리니코프는 큰 피해를 입는다. 윤리의식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 활동은 경제 주체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 라스콜리니코에게서 『멕베스』의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를 보는듯 하다.
- 『죄와 벌』에서主人公은 자기 의지에 중독되어 노파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이게 나다"라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그 확신에 노예가 되어 있다가 그 노예상태를 극복하게 된다. 결국 독자들이 『죄와 벌』을 읽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 읽는다.

사상

- 범인과 비범인: 나폴레옹이나 마호메트는 비범인이고, 현존하는 질서에 수동적인 인물들은 범인으로 보고 자신도 비범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무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치밀한 기획 살인이다.
 - "...중요한 것은, 죽였을 때 내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었다는 거야. 쏘냐.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필요했어.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겠어. 나를 이해해 줘, 쏘냐. 아마 같은 길을 가더라도, 다시는 절대로 살인을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다른 것을 알고 싶었어. 그것이 나를 충동질했어. 나는 그때 알고 싶었던 거야. 어서 알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이(벌레)인가, 아니면 인간인가를 말이야. 내가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아니면 넘지 못하는가! 나는 벌벌 떠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지니고 있는가..."
 - 죄의식은 없으나 심리적 방황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비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 벤담: "도덕의 목표는 행복이며 행복은 쾌락의 극대화와 같은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한 사람의 행복이 극대화 되면, 사회의 행복도 극대화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선이다.)

- 초인사상: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희생시켜도 된다는 사상.
 - “수도원으로 가게 될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선한 산업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정들이 극빈과 분열, 파멸, 타락, 성병 치료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 인간에 대한 관념:
 - 완결되지 않고 최종화 되지 않은 존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존재, ‘소돔의 이상’과 ‘마돈나의 이상’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즉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 분신
- 신에 대한 관념:
 - 그는 가장 종교적이고 러시아적인 작가, 그에게 러시아 정교는 근본
 -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삶은 선물이고 행복’, ‘매순간이 한 시대가’ 될 수 있고, ‘새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형에게 보낸 편지, 사면 직후)
- 자유의 테마:
 -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을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에 대한 겸허한 지향으로 이어짐

살인의 동기

- 가난에 째든 고독한 젊은 인텔리
 - 무더운 7월 저녁 페텔스블그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정뱅이 하급공무원 마르멜라도프와의 만남
 - 하녀의 나스타샤로부터 하숙비 체납으로 여주인이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 어머니의 편지로 도움을 줄 수 없고 누이동생 혼사문제로 복잡하다는 소식
- 이런 것들이 사건의 직접적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

- 예심판사 뽀르피리와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에 대하여”에 관한 논쟁
 - “..... 내가 흥미를 느낀 건, 당신 논문의 끝머리에 가서 잠깐 비쳤던 당신의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다만 암시적으로 쓰여 있을 뿐 분명치가 않습니다.....”
 - “문제는 이 분의 논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야. 평범한 사람은 항상 복종을 당하고, 법을 위반할 권리 따위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범한 사람은 다만 비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범죄를 행하고 어떤 법률도 초월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 “즉 ‘비범한 사람’은 어떤 장애를 넘어서는 걸 자기 양심에 따라 스스로 허락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의 공적인 권리는 아니예요. 단지 그건 자기의 사상—때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세적 의의를 지닌 사상의 실행이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한하는 것입니다.....”
- 라스콜리니코프는 인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명분을 가진 비범한 사람이라면 타인의 피를 흘릴 권리를 가진하고 주장하고 있다.

- **라스콜리니코프의 신념:** 라스콜리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나폴레옹과 같이 선택된 강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짓밟을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에 입각하게 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가 돈 없는 사람들의 귀중한 물건을 담보로, 그 가치에 알맞지 않은 아주 적은 돈을 주는 모습을 보고서 '노파는 피를 빨아먹는 벌레와 같다'고 생각하여, 노파를 죽인 후 돈을 훔쳐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정의심**에 불타올라 노파를 죽인다.
 - '선량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면서 잠시나마 스스로를 위로하고 설득도 하리라. (40)
 - "한편에는 어리석고, 의미 없고, 하찮고, 못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병든 노파가 있어. 그 노파는 자기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있으면 저절로 죽게 될 거야... 다른 한편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짊은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짊은이는 도처에 있어! 그리고 수도원으로 가게 될 돈으로 이루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선한 사업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정들이 극빈과 분열, 타락, 성병 치료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어. 이 모든 일이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건 간단한 계산이 아닌가!" (51)

- 표면적 요인: 돈
 -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가족을 위해 결혼해야만 하는 여동생 두녀의 어려운 처지를 듣고, 어머니와 누이를 경제적으로 도움으로써 여동생을 옳지 않은 결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 내면적 요인: 복잡한 심리적 요소
 -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덥고 습한 공기, 혐오스럽고 비열한 범죄의 소굴인 빈민가, 지하실, 선술집등이 범죄의 공범자.
- “나는 다만 ‘이’를 죽인 것뿐이야, 쏘냐. 무의하고 추하고, 해로운 ‘이’ 말이야.”
 - 원칙에 의한 살인?
 - 이념에 의한 살인?
 - 공리주의에 의한 살인?
 - 초인사상에 의한 살인?
 - 내면의 욕구(존재감)에 의한 살인 – 어머니의 편지가 촉발제(트리거)의 역할

- 인간을 죽일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초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살인
 - "... 난 말이야, 쏘냐, 궤변 없이 그냥,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죽이고 싶었어!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를 돋기 위해서 죽인 게 아냐. 그것은 헛소리지! 재산과 권력을 얻어서 인류의 은인이 되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냐.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인 거야. ... 중요한 것은, 죽였을 때 내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었다는 거야. 쏘냐,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필요했어. ... 나는 그 때 알고 싶었던 거야. 어서 알고 싶었어. ... 내가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아니면 넘지 못하는가! 나는 벌벌 떠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가 있는가....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이지 내가 아냐...."

자백

- 고백 후 쏘냐의 충고
 - “지금 즉시 네거리로 나가서 먼저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세요. 그 다음 온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에게 말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보내 주실 거예요.”
- 과거, 쏘냐가 읽어주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자극

- 『신약』의 요한 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자로의 부활'은 종국에 이르러 구원의 모티브가 된다. 예수의 사랑을 받던 나자로가 병을 앓다 죽어서 돌무덤에 나흘 간 묻혔을 때, 예수가 와서 살려 내는 기적을 보여 주는 메시지이다. 즉 가장 불가능한 죽음에서의 부활을 제시함으로써 이 지상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갱생의 길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 “괜찮아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성경을 좀 읽어줄래요. 라자로의 부활 부분이요.”
 - 쏘냐는 명하니 진땀을 흘리는 그를 바라보고았다. 영문은 알 수 없지만,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부분에 최대한 감정을 실어 읽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쏘냐가 성경읽기를 마친 후 5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속죄를 하고 싶었다.
 - “사실, 난 리자베타를 죽인 사람을 알고 있어요.”(161)
 - 쏘냐에 대한 증오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에 놀라서 머리를 치켜들고 쏘냐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에 놀라서 머리를 치켜들고 쏘냐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처로우리만큼 괴로운 눈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거기엔 사랑이 담겨있었다. **그의 증오심은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200)
 - (여동생 듀나가 보임). →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새로운 날을 맞이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게 됨

- 죄책감
 - 한순간 미칠 것만 같았다. 무서운 오한이 그를 엄습했다. 그러나 그 오한은 자고 있을 때부터 이미 나기 시작한 열 때문이었다.
 - 바로 지금 갑자기 이가 덜덜 떨리며 온몸이 얼어붙어 버린 듯한 지독한 오한이 그를 엄습한 것이었다.
 - →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후 심한 **죄책감** 때문에 열병을 앓음

우연의 일치

- 전당포를 다녀 오면서 드는 생각 : "그러나 대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 그런 추악한 생각을 내가 해낸 것일까? 아아 싫다! 정말 싫다! 그걸 나는 꼬박 한달이나!"
- 생활의 어려움과 누이동생의 약혼(오빠를 위한 희생)을 알리는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 "오빠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두냐는 모든 것을 팔려는 것이다! 자신의 도덕적 감정을 억누르고 자유와 양심까지! (중략) 그보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수를 써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넌 뭘 하고 있나?"
- 주정뱅이 마르메라도프와의 만남 : "그런데 젊은 양반, 당신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돼지가 아니다,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에겐 있나요?"

- 주점에서 엿들은 학생과 사관의 대화 => 장교 " 나는 그 송충이 같은 할멈을 죽여 버리고 돈을 모조리 빼앗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네. (중략) 한 개의 사소한 범죄가 몇천 명의 선행으로 보답될 수 없을까? "
- 길가에서 우연히 엿들은 노파의 여동생과 상인과의 대화 우연히 7시에 노파가 혼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됨 => 부부 : "내일 7시에 오세요 그분도 오실 테니까..(중략) 집에는 말하지말고 내일 나와 봐요 벌이가 괜찮을 테니까, 내일 7시입니다. 흔치 않은 돈벌이니까 잘해봐요." 라자베타 " 그럼, 내일 오겠어요"

- 리자베타의 우연한 귀가
 - "글쎄 이 보라니까요,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면 되는거에요." 하고 노점상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내일 일곱 시경에 꼭 이리로 오시오."
 - "그 사람들도 올 테니까"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손에 든 리자베타가 우뚝 서서 피살된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 살인을 저지른후 사람들이 전당포로 들어오려고 할때 우연히 빈방을 발견하고 그안에 들어가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음
 - 생각지도 않은 구원이 그때 나타났다. 몇 계단 밑 오른쪽에 문이 열려진 채로 있는 빈방 하나가 있었다.

배경의 역할

- 배경: 행위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구체적 정황.
- 소설의 배경: 작품들의 환경을 나타내주기 위해 작품 내의 행동과 행위의 주체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부여해 주는 소설의 요소.
- 배경의 기능
 - (1) 등장인물의 내적 상태나 개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투영으로서의 기능.
 - (2) 일정한 분위기나 정조를 창조.
 - (3) 소설의 주요 구성 요소.
 - (4) 배경은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 (5) 세부 묘사는 작품의 실제감과 입체감을 더해 주고, 나아가 상징적 기능도 수행.
 - (6) 생생하여 인상 깊게 독자의 기억에 남도록 묘사 →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에 대한 신뢰도 높여 줌.
 - (7) 등장인물의 의식 및 태도나 사회 비판적 측면을 보여 줌.

- 도스토옙스키는 나폴레옹이 사망한 해(1821)에 출생: 유럽 전체가 프랑스 대혁명 후의 혼란기에 직면
- 소설 '죄와 벌'의 배경
 - 시대적 배경 : 1860년대 러시아는 낡은 봉건 질서가 몰락하고 서구의 새로운 자유사상과 과격한 진보주의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시대.
 - 공간적 배경 : 근대 도시의 양상을 배경으로, 작중의 하급 관리 마르메라도프의 말대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페텔스블그의 뒷골목.
- → '폐쇄적인 시대상황'이라는 배경은 인간 회복의 희망을 호소하는 휴머니즘을 극적으로 표현하게 해줌

- 물리적 배경
 - '거리는 질식할 듯한 더위가 깔려있었다. 게다가 숨막히는 공기, 사람의 혼잡,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석회...'
 - '이 중부 페텔스불그의 거리나 뒷골목에 들끓고있는 직공과 노동자들의 무리-'
 - '여기 저기 벽에서 떨어져 늘어진 먼지투성이 누런 벽지 때문에 더욱 초라해 보였다. 게다가 천장은 어찌나 낮은지...'

에필로그

- 에필로그: 지구상의 바이러스의 출현
 - 꿈에서 깨어나면서 참회
 - 이성으로 인한 죄가 비이성적인 꿈에 의해 각성이 발생

Foresighting

-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암시를 뜻하는 것으로서 다가올 사건들이 미리 그 전조를 드리우는 방식으로 서사적 흐름이 진행되는 이야기적 장치를 말하는데, 복선은 보통 예시적인 주변 사건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인물이나 배경 등에 의해 유추된 추론의 형태, 즉 그러한 요소들이 계속되는 사건의 진행을 투사하는 형태를 취한다.
- 라스콜리니프의 꿈이 미래 사건의 전조
 - “이 암말을 때려죽이고 싶네. 그저 처먹기만 할 줄 알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야! 내가 마구 달리게 할 테니까 타라고! 모두 타!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말을 후려칠 준비를 해! 불쌍하게 생각할 거 없어.” 라고 말을 하고, 그 후에 무리 속에서 한 젊은이가 채찍을 들고 나와 말을 후려친다. 매를 맞은 말이 몸부림치다가 결국 푹 쓰러지자, 구경꾼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도 살아 있어! 도끼로 쳐 죽이면 어때? 단번에 해치우란 말이야!”
 - “콧등을 때려! 눈두덩을, 눈을 후려쳐라!”하고 미끄러지는 외쳤다. 라스콜리니프는 말 옆으로 뛰어갔다. 그는 앞으로 빠져 나가, 말이 눈두덩을 얻어 맞는 것을 보았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의 구경꾼이 외치고 있었다. “차라리 도끼로 하면 어때, 응? 단숨에 해치워버려.” 비쩍 마른 말은 코 끝을 쭉 늘어 뜨리고 괴로운 듯이 단말마적인 숨을 몰아 쉬더니 이윽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드디어 해치웠군 !” 하는 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렸다.

- 꿈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일곱 살 무렵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교외를 산책하던 중, 한 선술집 앞에서 암말 한 마리가 술 취한 마부 미콜카의 쇠지렛대에 의하여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한다. **Sigmund Freud (1856~1939)**: “꿈의 해석은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 다음 날 일어날 노파의 죽음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무의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꿈의 장면: 말을 죽이는 장면
 - 군중: 대중
 - 말: 노파
 - 어린아이: 긍정의 형용사, 구원의 대상

- 그의 베개 밑에 놓은 복음서가 간생을 도울 것이라는 말 → 궁극적으로 주인공이 신과의 화해를 통해 간생이 완성될 것임을 암시
 - 그의 베개 밑에는 복음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집어 들었다. 이 책은 그녀의 것이었다. 전에 그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준 바로 그 책이었다. 그는 유형 생활이 시작될 때 그녀가 종교 이야기로 자기를 괴롭히고 복음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책을 읽도록 강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중략)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새로운 이야기, 하나의 인간이 점차로 소생되어가고 그가 점차로 간생되어가는 이야기,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면서 여태까지 전혀 미지의 세계였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름

- Raskolnikov의 이름은 찢어 버리다는 뜻으로 '분열, 분리' 등을 의미한다.
 - →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라스콜(raskol): 쪼개기, 분열, 분리
 - 라스콜(Raskol): 종교 대분열
 - 라스콜니키(raskolniki): 분리파 교도
- Razumihin의 이름은 러시아어로 '이유'라는 의미 지님
 - → 라스콜리니코프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성적이며, 지적, 합리적인 모습을
- 두 이름이 주는 의미의 차이로부터 극중 두 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러시아 정교에서 소피아(쏘냐가 애칭)는 **정교의 3대 성녀** 중 하나
 -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적인 두려움과 갈등으로 정신적으로 분열된 사람, 세상과 단절되고 격리된 사람을 의미로 그런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준 쏘냐

긴장감 고조 기법

- 소설 첫 머리를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만들어 극적이고 긴장감도는 분위기를 조성
 - "7월 초 찌는 듯이 무더운 어느 날 해질 무렵" 한 청년이 거리로 나온다. "거리는 지독하게 무더웠다. 게다가 후텁지근한 공기, 혼잡, ...독특한 여름의 악취,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청년의 신경을 뒤흔들어 놓았다."
- 아니, 자네한테 얘기 하지 않았던가? 왜 관리의 미망인으로 고리대금을 하고 있던 할멈의 살인사건 말이야...'
 - ➔ 라스콜리니코프의 주관적인 사건 전개 중간중간에 제3자를 통해 '노파 살인사건'을 언급시킴으로써 긴장감을 형성함
- '라스콜리니코프는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내가 처형되기 한 시간 전에 그저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떻게 살건 그저 살아있고만 싶다고 했다.)....'
 - ➔ 작중 화자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초조한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묘사를 통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의

- 처벌과 분배는 정의 실현의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분노는 정의를 촉발시킬 수 있지만 정의 자체는 아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훗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의를 완성시키는 것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라는 사상을 발전시킨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은 바로 그것, 용서와 사랑을 결여하기 때문에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쏘냐: 거룩한 창녀의 의미

Brief History

- 1821: 모스크바에서 빈민구제병원 외과의사의 둘째 아들로 출생, 어렸을 때에 군사학교를 다녔으며 군사학교를 졸업하면서 문학에 관심
- 1843(22): 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 1844년 제대
- 1845(24):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로 당시 대표적 비평가 베린스키로부터 '제2의 고골'이라는 격찬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 그후 『분신』, 『이중인격』, 『프로할틴씨』를 발표하지만 혹평을 받음, 그후 반체제이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모임인 '페트라세프스키 회'라는 사상 보급 모임에 참여
- 1849-54: 체포되어 유배생활(28)
 - 문학관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는 젊은 지성인 모임에 참가하면서 당시 짜르 시대에 공개적으로 논의가 금지되었던 프랑스 사회주의 이론을 읽고 토론하였다. '페트라세프스키'사건에 연류,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총살 직전 황제의 특사로 징역형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로 중노동과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군에 복무하는 형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중 그는 인간적인 관계와 행동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이 경험은 *The House of the Dead* (1861-1862)라는 작품에서 상세하게 그리고 있고 이 작품에는 수감자들의 새디스트적인 구타, 외설적인 상황, 사생활 간섭 등을 묘사하고 있다.

- 1857년 유부녀였던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와 결혼
- 1859: 페텔스블그로 귀환한 뒤 다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에서부터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의 사상적 변화
- 1861: 형 미하일(Mikhayl)과 『브레미아』 *Time*라는 월간지를 시작, 파괴적인 글로 정간
- 1864: 『에보아』 *The Epoch*를 시작하지만 이 잡지 역시 단명하게 끝나고 만다. 이 잡지의 창간호에 그의 첫 철학소설인 『지하실의 수기』 *Underground*가 연재되는데 현대 문학에 최초로 반영웅(antihero)을 등장시킨다.

- 1866: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를 출판,
- 1867: 안나 그레고리에브나 스니토키(21세)와 재혼, 속기사였던 이 여성은 그의 질병이었던 간질을 치료와 작품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줌, 드레스덴에 거주하면서 『백치』, 『악령』 등을 쓰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도박증과 간질, 전처의 아이들, 형의 식솔들을 보살핌
- 1874: 『미성년』을 발표하여 큰 돈을 벌어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1880: 그의 최후의 걸작인 장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탈고
- 1881: 60세의 나이로 사망

작가

- 톨스토이와 더불어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세계문학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
- 낭비벽이 심했고 간질을 앓았으며 예민한 성격
- 톨스토이가 리얼리즘에 자연주의 성향으로 직접적인 교훈을 준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비극적인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도덕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 도박중독자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소설을 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이 죽은 후 그 식솔을 거둬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지기도 했다. 돈에 쫓겨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가 창조해낸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둡다.

- 도스토옙스키는 '잔인한 천재'라 불렸으며, '넋의 리얼리즘'이라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내면을 추구하여 근대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 시베리아 유형 중 인도주의자, 공상적 혁명가에서 슬라브적 신비주의자로 변신
- 『죄와 벌』은 후기 작품으로 사회적, 사상적, 정치적 문제를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재의 근본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소설은 페트라세프스키 사건에 연계되어 다른 회원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감형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됨

-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제목을 1863년 『브레미아』 지에 실린 포포프의 칼럼 '죄와 벌, 형법의 역사에 관한 논문'에서 인용하였으며, 범죄 사건을 소설의 소재로 사용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 또한 실제 살인 사건을 토대로 한다. 1865년 1월 『목소리』 지는 가게 점원 치스토프가 노파 두 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을 보도했다.
- 도스토옙스키는 재판 기록도 꼼꼼하게 살폈다. "재판 기록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 흥미롭다. 예술이 다루고자 하지 않는 인간 영혼의 어두운 측면을 조망해주기 때문이다."

